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0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8호

이회창 ≪집이 커서 죄송합니다≫

부정부패 도둑왕초 이회창의 초호화 빌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8기자회견을 통해 종로구 가회동 ≪호화빌라≫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총재는 빌라 입주 경위에 대해 ≪지난 97년 대선 때 구기동 집을 팔아 당비로 낸 뒤, 선거에서 패배하자 야당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 사돈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빌라 3층을 빌려쓰게 됐다. 야당이 된 뒤 들어갈 집이 없어서....≫라고 해명했다.

집세만 연간 2억원

이회창은 집세만 연간 2억 원이 넘는 114평짜리 초호화빌라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거주해왔다. 더구나 아랫층은 아들 내외, 위층은 딸 내외, 이렇게 집안식구끼리 위 아래 3층, 도합 342평이라는 고대광실에서 오손도손 살아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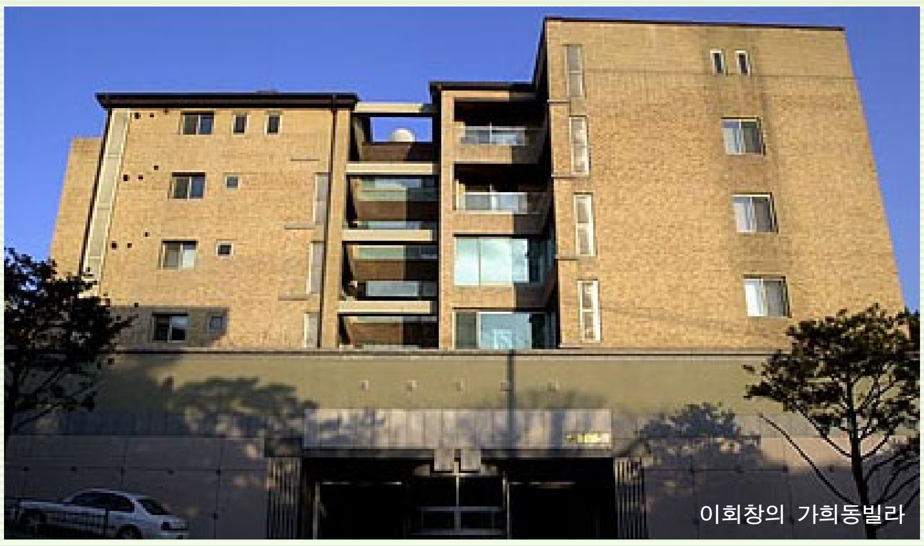
노숙자들은 들어갈 집이 없어서 가로를 헤매이는 판에 이총재는 들어갈 집이 없어서 114평짜리 빌라에 입주했다 한다.

이회창과 부인 단 둘이 거주하시는데 114평이나 필요한가?

우리 나라 국민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6.2평 밖에 안 된다. 1인당 50여 평이 넘는 대공간에서 활개치는 이총재의 가족에 비하면 거의 쥐구멍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총재 ≪가족빌라≫ 소유주는?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1의5 경남빌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급기야 이총재가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여권에선 ≪실제 전주는 따로 있을 것≫이라며 차명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회창의 가희동빌라

민주당 관계자는 9일 ≪202호의 실 소유주는 이총재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K의원 또는 L전의원이란 얘기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한다.

정가에선 이총재 딸이 전두환 전대통령 셋째 며느리 소유 빌라를 월세로 빌린 것을 놓고 두 집안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에서부터 며느리에게 빌라를 사준 사람이 전 전대통령인지, 친정인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비자금사건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한 전 전대통령이 사줬다면 압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 방미에 이은 방일행각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3박4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10일 오전 출국한다.

이총재는 방일중 고이즈미 준이치로총리와 와타누키 다미스케중의원 의장, 이노우에 유타카 참의원 의장 등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한일관계와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총재는 공명당과 자유당, 보수당, 사민당, 민주당 등 주요정당 대표들과 경제인, 언론인 등도 만나 9.11 미 테러참사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정세, 한일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또 일본기자클럽과 오찬을 함께 하며 21세기 동북아와 한일협력의 비전에 대해 연설하고 일본 월드컵 조직위를 방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총재는 지난해 1월 도쿄 신오쿠보역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당시 26세)씨의 추모비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남경필 대변인이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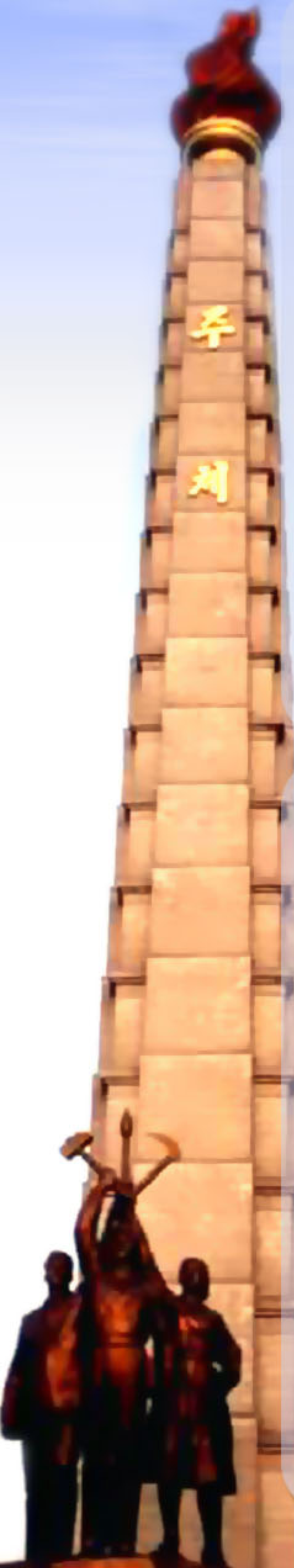
반이회창
1 부정부패 도둑왕초 이회창의 초호화 빌라
1 이회창 방미에 이은 방일행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5)
세기와 더불어
4 4장 2절 준엄한 봄
칭송
6 잊을 수 없는 밤 (2)
6 평양 속에 세계가 있다
6 조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

한국민족민주전선
7 구속학우석방투쟁을 힘있게 벌이자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8일
8 조선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9 주체91, 3월 8일 보도
10 녀성들은 강성대국건설의 힘 있는 력량이다 - 사설 주체 91, 3월 8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사상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
아리랑뉴스

12 미군기지, 더 이상 내줄 수 없다
12 반미주가 연일 최고치. ≪과열양상 띤다≫
12 부시, 이북 등에 핵공격준비 명령
13 테러방지법안 폐기촉구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13 북, 월드컵기간 미군전력 강화비난
13 고대법대학생회, 이색시위, ≪법전을 찢어라≫
13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
14 2012년에 제1야당 된다 (2)
14 진보넷 민주노총, 홈페이지폐쇄조치에 반발
운동강좌
15 반전반미투쟁과 6.15실천투쟁의 결합에 대하여 (1)
광고
15 통일여명편집국보도집1
조국통일3대헌장
16 90년대 통일을 위한 전민족단합의 대헌장 (1)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5)

주체67(1978)년 11월 18일



우리는 조선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의 이익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는 혁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언제나 그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덕신선생은 이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지만 최동오선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도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고려공산당이요 무슨 공산당이요 하면서 감자도장을 새겨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데 누가 승인하고 말고 할 것이 있는가고 비웃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위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으며 앞으로도 우리 식대로 나라를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고 우리 민족에게 복무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조선의 애국자들이 인민들에게 민족의식을 배양하느라고 토목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도 토목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던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적극적인 투쟁은 못되지만 투쟁형식은 좋았습니다.

해방후 우리 북반부에 큰 방직공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청년들에게 무명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날론천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천을 자체로 생산하여 좋은 옷을 해입고 있습니다. 비날론은 이승기박사가 해방전에 일본에 있을 때부터 연구한 것입니다. 그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쓴 비날론에 대한 연구논문이 베를린도서관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해방후 남조선으로 갔는데 남조선집권자들은 그에게 과학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장군님의 품속에서 민족을 위해 복무하겠으니 받아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는 북반부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나는 전쟁시기에도 압록강연안에 연구소를 지어놓고 그가 연구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후에 나는 이승기박사를 만나 연구결과를 알아보고 함흥에다 비날론공장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과학원 함흥분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 대표단들은 2.8비날론공장을 돌아보고는 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승기박사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가지고 비날론을 만들어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는데 공업을 주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료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그 나라들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일없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목덜미를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료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전에 일부 사람들은 원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는 것이 좋기는 좋다, 그러나 원유가 나오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였다가 무슨 일이 생겨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원유화학공업은 우리 나라에서 원유가 나올 때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세계적으로 연료위기가 조성되어 원유값이 올라가고 미국, 일본, 서부독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불경기로 아우성을 치게 되자 그들이 나에게 수령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수령님의 말씀대로 주체공업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다 망할 뻔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경제에서 주체화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에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유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에게는 나라의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석탄과 석회석이 몇백년 캐먹을 수 있을 만큼 무진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민족의 것을 사랑합니다.

선생이 앞으로 자주 오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상점들에 가보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상품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학생운동을 할 때에 일본상품배척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상품을 송화강에 처넣군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 상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일부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있지만 인민들의 소비상품은 다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생산한 것입니다. 조선속담에 아이는 제 아이가 곱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만든 상품이 질은 좀 낮아도 제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기 나라의 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 왜 찬양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외국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것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그 무엇을 보나 러시아식, 중국식이 전혀 없고 다 우리식입니다.

일부 나라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글을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에 대한 좋은 글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신문에는 우리에 대한 글이 나가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 대한 글을 내달라고 줄 돈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을 돈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한 글을 내는 것은 다 사상적 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사회는 일본화, 서양화되어 사람들이 조선말과 일본말, 서양말을 마구 섞어쓰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선민족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살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이 사대주의를 하다보니 조선사람들이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에 동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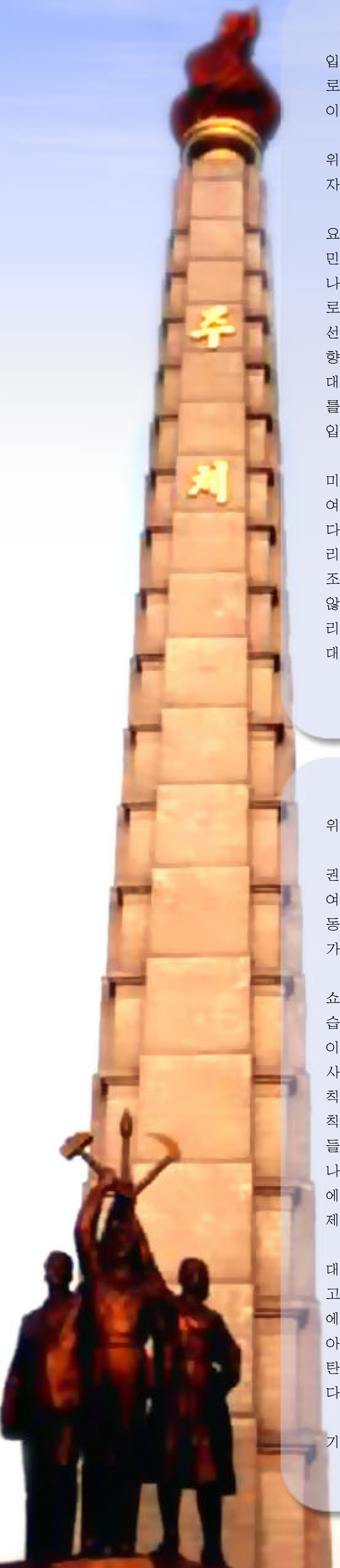
얼마전에 총련의 한덕수의장이 조국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우리 동포들이 비록 몸은 일본에 있어도 동화되어 일본사람이 되지 말고 조선의 넋을 가진 조선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양받은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그 어디에 내놓아도 다른 나라 사람으로 동화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앞잡이노릇을 하지 않을 것

→

미국사람들이 우리 인민과 철천지 원쑤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미국인민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적대국이라는 인상을 가지지 않고 조미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 나라는 통일이 되어도 절대로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앞으로도 그 어느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중립적이며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 것입니다.

미국지배층의 견해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미국사람들이 우리 인민과 철천지 원쑤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미국인민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적대국이라는 인상을 가지지 않고 조미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인 것만큼 미국이 지난날 우리와 전쟁을 했다고 하여 영원히 우리의 적대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일 미국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을 예속국으로 틀어쥐고 있으려 하지 않으며 조선이 통일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미국과 틀릴 조건이 없으며 미국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두개 조선≫으로 만들어 분단국가로 유지해나가려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카터가 미국대통령으로 올라앉은 다음 1년반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카터가 선거공약에서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였고 또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우리 나라에 대한 내왕도 허락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미국은 남조선에 비행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 군사장비를 더 많이 끌어들였으며 ≪원조≫도 계속 주었습니다. 카터는 ≪서거공약≫에서 인권탄압을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박정희군사파쇼독재정권을 계속 비호하였습니다. 카터가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하여서는 떠들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비-52≫전략폭격기가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는데 대해서도 한동안 가만있다가 올해에 미국과 남조선이 ≪한미연합작전훈련≫을 한 다음에야 ≪철군≫을 한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작전훈련≫이 무엇인가,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이래 처음 있은 대군사연습이라고 때렸습니다.

미국에서 카터가 대통령으로 올라앉은 후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비-52≫전략폭격기가 항로연습을 한다는 구실밑에 한달에 1~2번씩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도 군인출신인 것만큼 잘 알고 있겠지만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현대적 비행기가 항로연습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오끼나와에 있는 폭격기가 폭격연습할 곳은 오끼나와비행장 근방에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남조선의 아산만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겠습니까.

전번에 내가 일본잡지 ≪세까이≫편집국장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남조선사람들에게 현 ≪정권≫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자는 것이며 또 우리도 위협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사람들이 박정희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협하지만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파쇼독재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있으면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과거 봉건사회가 이 법칙에 의하여 무너졌고 자본주의가 이 법칙에 의하여 망해가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이 법칙에 따라 혁명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쇼가 심하던 에스파냐에서도 인민들이 투쟁한 결과 파쇼독재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에게 무기를 많이 대주어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무기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기를 대준다고 하여도 인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쓰고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남조선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조선경제가 ≪고도성장≫을 한다고 하여도 자본가들 몇몇 사람이나 잘 살 수 있지 노동자, 농민들은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본데 의하면 서울에는 이틀에 밥을 한끼씩 먹는 사람, 하루에 밥을 한끼씩 먹는 사람이 인구의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남조선군사독재자들을 비호하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조선사람들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며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되게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지난 시기에 있은 조선농민폭동과 3.1운동, 광주학생사건, 4.19인민봉기에 대해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자부심이 높습니다. 조선민족은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미국이 계속 그렇게 우둔한 정책을 쓰다가 남조선에서 되게 얻어맞기보다는 지금 점잖게 남조선에서 손을 떼고 조선사람들끼리 통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조선에서 인권탄압을 못하게 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적 정부를 세우고 조선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여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게 하면 미국에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미국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고 미국과 우호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두개 조선≫정책을 그만두고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부 미국사람들이 북과 남의 ≪세력균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사람들도 남조선을 계속 붙들고 앉아있어야 큰 이득이 없고 남조선통치배들이 자꾸 돈만 달라고 하며 또 잘못하다가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 죽음밖에 차례질 것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손을 떼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당국자들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면 북조선이 남조선을 내치고 공산주의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조선괴뢰들도 계속 그렇게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2. 준엄한 봄 (1)

나는 로상에서 뜻밖에도 차광수를 만났다. ≪덜렁광창≫의 눈은 도수높은 근시경 밑에서 기쁨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멀리서부터 환성을 질렀다. 차광수는 나의 소식을 알고 싶어 손정도목사네 집으로 가던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 팔로 안아들고 몇 바퀴 빙그르르 돌아갔다.

그는 혁명을 하느라고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니 고독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 하면서 한참동안 길림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성주, 조선의 로동운동은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소. 투쟁구호, 투쟁양상… 모든게 새롭고 생신하거든. 30년대의 민족해방운동은 특히 투쟁양상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 같은데 어떻소? 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우리 혁명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피발이 선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혁명가의 리상은 고사하고 일신의 목숨조차 보존하기 어려웠던 살벌한 시기에 적의 공세에 위축되거나 겁을 집어먹지 않고 오히려 변복을 해가면서 동지들을 찾아다니며 공산주의자로서의 모색을 계속하고 있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서 나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리라는 광수동무의 견해에는 나도 동감이요. 그런데 그 기치란 무엇이겠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새형의 당을 창건해야겠다는 것과 무장투쟁에로 이행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소. 무장투쟁만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소. 조선 인민이 벌이는 모든 투쟁은 당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여 온 민족이 총동원되는 거족적인 항전으로 발전해야 하오.≫

나는 옥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토로하였다.

차광수는 내 말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신안툰에 가서 김혁, 박소심 동무들과도 토론해보았는데 그들도 동감이라고 하였다. 무장을 잡지 않고서는 조선을 구원할 수 없고 새로운 로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것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무장투쟁은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성숙된 요구였다. 일제의 파쑈적인 강권통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조선민족의 무권리와 빈궁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1929년부터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경제공황의 파도가 일본에도 미치었다. 일제는 대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에서 찾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폭압과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가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과 억압에서 부국강병의 길을 찾았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민족재생의 길을 찾았다. 경제투쟁 일면으로 치우치던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점차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나는 그때 신흥탄광 로동자들의 파업을 흥미있게 주시하였는데 그 파업도 종국적으로는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수백 여명의 로동자들은 파업단의 지도 밑에 탄광 감탄소와 사무소, 기계실, 발전실, 공장장사택을 습격파괴하고 탄광구내의 전선을 모조리 절단하였으며 탄광을 운영하던 일본사람들이 두 달이 걸려야 탄광의 목구가 가능하다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파업로동자들은 회사측에 심

원산노동자 총파업

대한 손실을 주었다.

폭동은 무장경관대의 개입으로 백수십만명에 달하는 피검자를 내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폭동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훗날 무장투쟁을 할 때 위협을 무릅쓰고 신흥지구에 들어가 로동운동지도자들을 만나보았다. 조선로동계급의 투쟁은 조직력과 단결력, 지구성, 련대성의 측면에서도 종전의 운동에 비해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원산로동련합회에 망라된 2000여명의 로동자들, 농민들은 곳곳에서 격전, 격문, 동정금을 보냈으며 대표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홍원, 회령을 비롯한 국내의 로조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원산에서 수 천리 떨어진 길림에서도 우리가 조직한 반일로동조합산하의 한성회성원들이 원산로동련합회에 동정금을 모아 보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산총파업은 1920년대 우리 나라 로동운동의 정점을 이룬 사변으로서 세계로동운동사상에 조선로동계급의 전투력과 혁명성을 뚜렷이 부각해 놓았다.

나는 옥중에 있을 때 원산총파업의 전과정을 심중하게 주시하면서 그 투쟁이 우리 나라 로동운동력사에 특기할만한 투쟁이며 그들의 투쟁경험이 조선의 사회운동자들이 다같이 참고하고 따라배울만한 가치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때 갱신된 로동련합회지도부가 취지 내리지 않고 끝까지 파업을 밀고 나갔거나 전국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이 파업에 호응하여 본격적인 실력투쟁을 벌이였더라면 원산로동계급의 투쟁은 승리로 결속되었을 것이다.

나는 원산총파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조선에 로동계급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하고 령도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한시바삐 내와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장투쟁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축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투쟁도 그 배경 밑에서 더 치렬하게 벌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적이 철권을 가지고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폭력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적 폭력이야말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의 반혁명적 폭력을 타승할 수 있는 가장 승산있는 투쟁수단이였다. 적이 총칼로 휘두르는 조건에서 조선 민족도 자신을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야 하였다.

교육, 문화, 경제의 진흥을 통한 순수한 ≪실력양성운동≫이나 로동대중의 쟁의나 외교공작의 방법으로써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었다. 원산총파업과 신흥탄광 탄부들의 폭동을 통하여 조선의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비할 바 없이 두터워 졌으며 그 과정에 나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훌륭한 로동계급이며 우리 민족이 참으로 전투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었다.

문제는 로선이고 지도였다. 시대의 추이에 맞는 옳은 로선이 있고 올바른 지도만 있으면 어떤 강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이 생기였다. 파괴된 조직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 그들을 일본제국주의와의 결전에 하루속히 준비시켜야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내 마음은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이러는 사이에 흩어졌던 동무들이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씩 나한테 모여들었다.

나는 길림지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반일로동조합, 농민동맹 핵심들과 마주앉아 적들의 백색테로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빨리 복구정비하고 군중을 묶어세우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차광수를 흥분시켰던 무장이라는 한 마디의 말은 여기서도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지지가 나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간도와 조선의 북부국경일대에서 공청사업을 강화하며 이 지역을 신속히 혁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속있게 벌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몇가지 과업을 토의한 다음 그 집행을 위하여 각지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나도 신안툰에서 하루밤 자고 인차 돈화를 향해 떠났다.

내가 돈화를 공작지로 정한 것은 거기가 동만 각 현들과 련계를 짓기에 편리한 고장이고 또 그곳에 나를 도와줄만한 친지들이 여러 사람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얼마동안 머무르면서 폭동이 세차게 번져가고 있는 동만의 사태에 대처할 조직들의 활동방향을 제시해주고 옥중에서 무르익혀온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세울 작정이었다.

길림을 떠나면서 내가 제일 허전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나 중학만이라도 마치라고 한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박일파는 나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내세워 육문중학교 당국과 복교교섭을 할터이니 중학교를 마저 다니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길림에서 ≪동우≫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던 민족주의자 박기백의 아들이다. 막우천은 그의 필명이다.

내가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박일파는 길림법정대학을 다니면서 류길학우회의 사업을 도와주었다. 그의 꿈은 법조계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그는 로어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백계로씨야장교를 따라다니었다. 그가 백파장교와 접촉하는 것을 신생로씨야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처럼 여기고 있던 우리 동무들은 나에게 그와의 거래를 끊으라고 권고하였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어도 배워두면 혁명을 위해 큰 밑천이 될 수 있으니 그가 백파장교를 따라다닌다고 배척하는 것은 편협한 처사가 아닌가.≫고 하였다. 해방후 박일파가 똘스또이의 ≪고난의 길≫과 같은 명작들을 많이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은 것은 학창시절에 로어공부를 꾸준히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박일파와 마찬가지로 김혁과 박소심도 복교가 가능하다면 한 해 공부를 더하여 중학과정을 어떻게 하나 끝내라고 권고하였다.

→

고재봉

리광한교장이 공산주의자를 리해하는 사람이니 김성주가 한 해 공부를 더하겠다고 청원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공부는 자습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파괴된 조직들이 우리를 가디리는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혁명을 외면하고 학창으로 되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중학공부를 단념하고 막상 길림을 떠나자고 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아버지가 생전에 조국에 나가 공부하라고 하면서 엄동설한에 나를 홀몸으로 고향에 내보내던 일,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혀놓고 조선력사와 조선지리를 가르쳐 주던 일, 림종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주만은 중학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뜻을 이어 하루 세끼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성주를 중학교에 꼭 보내라고 유언하던 일들이 떠올라 내 마음을 착잡하게 하였다.

졸업을 한 해 앞두고 내가 학교를 중도반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삼년동안 모지라지도록 삯빨래와 삯바느질을 하여 다달이 학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시며 동생들은 얼마나 허전해 하겠는가.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며 학비를 보태주던 아버지의 친구들과 나의 학우들은 또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

그러나 어머니만은 나를 리해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할 때에도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적인 혁명의 길에 나서려는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 따르고 지지하였다. 그러니 아들이 설사 중학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반단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혁명을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한 처사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육문중학교를 중퇴하고 인민들 속으로 들어간 것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로부터 나의 지하활동이 시작되었고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집에 문안편지 한 장 전하지도 못하고 돈화로 가는 내 마음은 산란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리 혁명에 전념할 때라고 하여도 한 두 줄의 인사야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고 스스로 자기를 꾸짖어도 보았지만 웬일인지 편지를 쓸 수 없었다.

나는 감옥에 잡혀들어간 다음에도 어머니가 걱정할가봐 내 신상에 일어난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1929년 겨울방학을 우리 집에 가서 보낸 동무들이 그만 내가 감옥에 간 전말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길림에 오지 않았다.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천리 밖에 있다가도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와서 간수들에게 면회를 시켜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어머니들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로서는 상당한 참을성을 발휘한 셈이었다. 아버지가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에는 나까지 데리고 몇 번씩 면회를 가던 어머니가 10년 후 아들이 옥중생활을 할 때에는 단 한 번도 감옥을 찾지 않았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안도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도 어머니는 감옥에 찾아오지 않은 리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감옥을 찾아오지 않은 거기에 바로 어머니의 참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철창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오히려 성주가 괴로와할 수 있다, 내가 면회를 간대야 그 애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는가, 앞에는 넘어야 할 고개도 많은데 첫 걸음에서부터 인정에 끌리면 그 애가 장차 걸음을 똑바로 걷겠는가, 옥중에서 고독을 느끼더라도 차라리 면회를 가지 않는 것이 그 애를 위해서도 리로울 것이다. 어머니는 아마 이런 심정으로부터 면회를 단념할 결단을 내린 것 같았다.

송계심어머니

나는 이 사실에서 순수한 보통녀성으로부터 혁명가로 성장한 강직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감옥생활을 마치고 넓은 세상에 나서고 보니 이제는 학교에 매인 몸도 아닌데 집에 가서 다문 며칠만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돈화땅으로 결연히 발걸음을 옮기었다. 돈화에서 서남쪽으로 60리쯤 가면 사도황구라는 산간마을이 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담당한 공작지였다. 내가 감옥에 갇힌 후 길림에서 일어난 검거의 선풍이 무송에까지 미쳐오는 것을 예방하려고 공청, 백산청년동맹, 부녀회 조직들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여러 세대의 집들이 안도와 돈화방면으로 이주하였다. 어머니 자신도 추운 겨울날 형권삼촌과 함께 동생들을 데리고 안도땅으로 이사하였다.

그 당시 동만으로 이주한 수십 세대의 집들 중 여섯 세대가 사도황구에 자리를 잡았다. 그 여섯 세대 가운데는 고재봉이네 일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의부 급비생으로 무송사범학교를 졸업한 고재봉은 백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독립군에 입대하여 무송지구별동대 지휘관으로도 복무하였다. 그는 반일군중단체의 핵심이었다.

그의 손아래동생 고재룡은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동창생이었다. 훗날 그는 양정우부대에 참군 하였다가 몽강인가 림강에서 전사하였다.

고재봉의 막내동생 고재림은 백산학교를 졸업한 다음 길림육문중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함께 공청활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1930년 봄부터는 만철의학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가 길림에 있을 때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고씨문중 사람들은 원래 무송에 있을 때부터 우리 집과 각별히 가깝게 지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을 돕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객주업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다.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으로는 그때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수없이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우리 집에서 침식을 해가며 며칠씩 묵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시중을 하느라고 손에서 쌀함과 물동이를 놓을 새가 없었다.

이것이 군벌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이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고재봉의 어머니(송계심)는 어느날 우리 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김선생님, 댁에서는 이제부터 손님들을 치르지 말아주시우다. 지금처럼 댁에 사람들이 끓게 되면 김선생 신상에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수다. 무소에 오는 독립군 손님들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으니 ≪무림의원≫댁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우다.≫

이 일로 해서 우리 아버지는 고재봉의 어머니를 크게 신임하게 되었으며 나도 고재봉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백산학교가 폐교된 후 우리 어머니가 교사로 쓸 건물을 해결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에도 고재봉이네는 자기 집 웃방을 교실로 쓰라고 선뜻 내맡기었다.

고재봉은 사도황구에 온지 반년도 안되었지만 그동안 동흥의숙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부백가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사도황구와 그 주변마을들에 공청과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계속하여 반일부녀회와 농민동맹을 조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재봉의 어머니는 내가 가자 너무 반가와 눈물을 흘리며 무송시절을 회상하였다. 지난해 가을부터 감옥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석방되어 사도황구로 곧추 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모색은 예전과 다름없으나 부종이 있고 병색이 짙은데 집의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느냐고 하였다.

나는 이 집에서 한 달 가까이 신세를 졌다. 고재봉의 어머니가 그때 나의 몸을 추세워주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는 보리쌀에 좁쌀을 섞어 지은 밥에 산나물을 무친 찬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내 앞에 끼니마다 독상을 차려주면서도 음식이 초라해서 안됐다고 미안해 하였다. 생소한 산골에 와서 객주업도 하지 못하고 첫해 농사를 방금 시작한 데다가 외손자들까지 와서 더부살이를 하는 그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무송시절부터 나의 식성을 잘 알고 있은 송계심어머니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다는 분틀을 구해다가 나에게 국수를 눌러주었고 고재봉은 돈화현성에 가서 절임한 송어까지 사다가 밥상에 놓아주었다. 고재봉의 매부는 부종에 특효가 있다는 상골을 잡으려고 새벽마다 샘터에 나갔다. 이 일가의 지성으로 내 건강은 빨리 회복되어갔다.

고재봉은 안도까지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고 돌아왔다. 사도황구에서 안도까지 200리가량 되었는데 그는 이 먼길을 하루 동안 가내군 하였다. 고재봉은 소실 ≪림꺽정≫에 나오는 황천왕동이처럼 하루에 300리를 걷는다고 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 돈화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련락을 받고 그때 철주가 고재봉을 따라 사도황구에까지 왔다갔다. 철주는 어머니의 편지와 내가 입을 속옷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무송을 떠난 집안식구들이 그동안 구안도(송강) 서문 밖에 있는 마춘욱이네 집에서 재봉기를 세내여 삯바느질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흥륭촌에 가서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철주는 새 고장에 별로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중강, 김강, 팔도구, 무송과 같이 큰 강을 낀 시가지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벌방과 철도에서 멀리 떨어진 안도는 너무나도 한적한 시골이었고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또하나의 서름서름한 고장이었다.

≪형님, 감옥에서 나온 다음 무송에는 들려보았나요?≫

그때 철주는 나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

≪들리고 싶었지만 들리지 못했다.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돈화로 곧추 온 내가 무송에 어떻게 간단 말이냐.≫

≪무송 사람들이 형님을 몹시 보고싶어 했어요. 울화형은 형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루에 한번씩 우리 집에 오군 했어요. 무송 사람들이 참 좋았지요?≫

동생의 목소리는 무송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푹 젖어있었다.

≪그럼, 좋구말구.≫

≪무송에 두고 온 동무들이 자꾸 생각나군 해요. 형님이 그쪽으로 가실 기회가 생기면 우리 동무들을 꼭 만나보라요.≫

≪그렇게 하자꾸나. 그래 안도에 와서도 새 동무들을 많이 사귀었니?≫

≪아직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안도에는 내 나이또래의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철주가 새 고장에 와서도 무송시절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 그리움때문에 안도생활에 깊숙이 발을 잠그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낸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애수에 잠긴듯한 동생의 눈과 쓸쓸한 얼굴표정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었다. 그 나이의 망향소년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감의 표시하고나 할가. 동생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는 어쩐지 내 마음까지도 어수선하게 하였다.

≪철주야, 부지런한 농사군에게 좋은 땅, 나쁜 땅이 따로 없듯이 훌륭한 혁명가에게는 좋은 고장, 나쁜 고장이 따로 없단다. 안도라고 왜 좋은 동무들이 없겠느냐. 동무라는 건 찾아낼 탓이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 동무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캐내듯이 찾아내야 한다구. 좋은 동무들을 많이 찾아내서 한번 안도를 멋있게 개척해보아라. 너두 인젠 공청생활을 해야 할 나이가 아니냐.≫

나는 공청에 가맹할 준비를 잘해야한다고 동생에게 거듭 강조하였다.

≪알겠어요. 형한테 걱정을 끼쳐 미안해요.≫

동생은 표정을 가다듬고 엄숙한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후 철주는 인차 공청에 가맹하였다.

(내일 계속)

일화

잊을 수 없는 밤 (2)

부대장의 이런 회고담을 들으신 그분께서는 40년대에는 일제를 때려부수었다면 이제는 미제를 타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군인들의 훈련을 강화하여 싸움준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일부 부대들에서 여러가지 잡다한 일을 자주 조직하면서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일을 두고 몹시 심려하시였다.

그분께서 심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는 그 부대에도 있었다. 윗단위의 개별적 지휘관들이 내리먹이는 부당한 지시로 하여 훈련강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억이 막히신듯 한참이나 말씀을 못하시다가 조용한 음성으로 타이르시였다. 부대의 전투준비와 훈련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진 사람은 다름아닌 부대의 책임일군이라는 것,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의 구호를 관철하는데서 기본은 훈련이라는 것,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 기본을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차근차근 깨우쳐주시였다.

부대장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김일성주석님께서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몸소 전연에 위치한 대덕산초소를 찾아주시고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면서 젊은 병사들을 잘 교양하고 일당백으로 준비시켜 그들이 한몫 하게 하라고 간곡히 가르쳐 주신 뜻깊은 말씀을 직접 받아안은 자신이 아닌가.

기억도 새로운 1963년 2월 6일, 신생 쿠바를 요람기에 압살할 목적으로 카리브해위기와 같은 엄청난 사태를 격발시킨 미국이 주한 유엔군과 국방군에 전투비상까지 걸어놓고 있던 그 무렵 온밤 내려쌓인 숫눈길을 헤치며 대덕산초소를 찾아주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방어공사와 전투훈련을 잘하면 일당백이 될 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에 ≪일당백≫이라는 유명한 구호를 제시하신 역사적 순간이였다.

그때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수령님앞에서 그 어떤 원쑤들이 달려들어도 일당백으로 방어해 내겠다고 결의다지는 지휘관들에게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물론 한사람이 적을 열놈, 백놈 담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무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무기에 정통하며 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적을 족치는 전법에 숙련된다면 일당백은 문제없습니다. 지휘관들은 군인들을 일당백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구절구절이 쟁쟁히 되살아오르면서 그 귀중한 말씀을 직접 받아안은 자신이 이러저러한 장애가 있다고 하여 군인들의 훈련에 모를 박지 못한 자책이 가슴을 쳤다.

그분께서는 괴로워하는 그를 위로하시려는듯 시간이 많이 갔으니 이제는 자자고 하시면서 너그러이 웃어보이시였지만 부대장은 잠들 수 없었다. 당과 국가 사업에 그처럼 바쁘신 그분께서 어찌하여 멀고먼 전연부대에까지 찾아오시였는지 그리고 딱딱한 방바닥에 한이불을 덮고 누우시어 그토록 간곡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깨달아졌다.

먼 농가쪽에서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아스랗게 들려왔다. 초소의 군인들을 찾아주시고 ≪일당백≫의 구호 관철을 위한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신 뜻깊은 밤이 지새고 있는 것이였다.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는 다른 부대들에도 수없이 찾아가시어 이런 뜻깊은 밤을 보내시며 군인들을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키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전군의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으로 준비시켜 조국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내도록 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끝)

송시

평양속에 세계가 있다

사람들이여 세계지도를 펼치시라
태평양상 크지않은 한반도중심에
심장으로 자리잡은 평양을 짚으시라
동경 125.41　북위 39.1
평양은 세계 속의 평양인가

초원의 사자마냥 으르렁대는
세계유일초대국을 향해
할 소리 다 하고
앉아서도 받아낼 건 다 받아내는
평양이 과연 세계 속의 평양인가

평양이 한쪽으로 고개 돌리면
이 행성이 움씰 그 쪽으로 기울고
평양이 노해 발을 구르면
제국주의 발밑엔 지진이 일어

통쾌하다
붉은기 숲을 이룬 평양을 찾아
조심조심 눈치를 보며
희끗희끗 흘러드는 흰 깃발의 행렬이…

고마워라
인간세상이 오염될세라
자본의 잡균들을 싹쓸이 하며
신선하게 불어오는 평양바람이
태양활동의 변화에 따라
지구의 기상도가 달라지듯이
천변만화하는 평양의 표정에 맞춰
세계정치기상도가 달라지거니

사상으로 이기시고
신념으로 이기시고
지략으로 이기시고
배짱으로 이기시는
천출명장 **김정일**영수님 계시어
평양을 축으로 지구가 도는 거다
그렇다
평양 속에 세계가 있는 거다!

흠모

조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

≪주체사상, 이것은 참으로 전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사상이론의 대가이시다. 사람중심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한다.≫(영국의 출판사대표단 성원 로버트 모함메드)

≪나는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거둔 빛나는 성과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조선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나는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이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시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영도 밑에 보다 밝은 미래를 앞당겨 올 것이며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이란군대의 한 퇴역장교)

≪나는 전람회장을 돌아보고 감동을 금할 수 없다. 사진들에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들의 독특한 건축미, 시원하게 낸 도로들,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 방대한 것들이 짧은 기간에 건설되였다니 믿기 어렵다. 위력한 경제적 잠재력이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평양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도시이다. 이런 훌륭한 곳에서 사는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한 인민이다.≫(폴란드작가동맹 일꾼 졸란다 카브로준스까)

≪평양은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이다. 평양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 평양을 보고도 조선의 눈부신 발전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이란기자 카벤)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인민생활의 계통적인 향상, 놀라운 건설속도, 이 모든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올바른 인민적 시책의 결과이라고 생각한다. 그이는 정말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자라고 공부한다니 꿈같은 세상이다. 나는 수업료를 물기 위하여 공부가 끝나면 장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의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한다니 정말 부럽다.≫(이란의 테헤란종합대학 학생 알리 모함마드 네자드)

구속학우석방투쟁을 힘있게 벌이자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6일~8일

공안당국이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연일, ** 구속하고 있어 각계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만도 공안당국은 전쟁의 불씨를 안고 이 땅에 기어든 부쉬의 행각을 반대하여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에 참가했던 한총련소속 대학생들과 반미반부쉬투쟁을 힘있게 벌인 청년학생들을 수많이 연행, 구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1일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이 밝힌데 따르면 공안당국은 지난해에만도 무려 907명의 애국학생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했다고 합니다.

공안당국의 이같은 탄압만행은 시대의 요구로 보나 청년학생들의 기상으로 보나 용납못할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이후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겨레의 통일기운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 조국통일은 더이상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생생한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청년학생들이 **** 하여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투쟁의 앞장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이북의 새해공동사설과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반미반부쉬투쟁을 벌이는 등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벌인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도 한총련이 밝힌 것처럼 한반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견제하고 화해를 바라는 겨레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청년학생들의 이같은 투쟁은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것으로써 온 민족의 찬양을 받으면 받았지 탄압의 대상으로는 절대로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한 수많은 애국학생들을 철창속에 가둬놓고 온갖 박해를 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또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연일 구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을 위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한 수많은 학우들이 영어의 몸이 되어 참기 어려운 옥중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현실은 정의에 투철하고 투쟁에서 용맹한 우리 청년학생들이 더욱 힘찬 투쟁을 벌여 부당하게 구속된 학우들을 구출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하여 구속된 학우들을 하루빨리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분기해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청년학생들은 의로운 학생들을 철창속에 가둬놓고 탄압하는 공안당국의 반시대적이며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를 낱낱이 폭로규탄하는 대국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대자보게시, 유인물배포 등을 통해 공안당국의 반시대적인 작태와 구속학우탄압행위를 각계 민중속에 알려주기 위한 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 공안당국의 범죄적 만행을 똑똑히 알고 구속학생석방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학생들은 실천투쟁도 가열

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구속학우석방, 공안탄압분쇄, 수배해제 등의 구호를 들고 시위와 집회 등 여러가지 투쟁을 강도높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실천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정의와 애국에 투철한 청년학생들에 대한 구속과 처형소동은 절대로 멈춰질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곧 구속학우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면서 이 투쟁을 구속학우석방투쟁과 밀착시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철폐를 반대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보수세력의 책동에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적들에 강한 타격을 안겨야 할 것입니다.

각계 민중과의 연대연합은 투쟁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전국민중연대와 전국연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한 투쟁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연대공동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오늘의 격동된 시기에 걸맞게 투쟁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각계 민중과 함께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공안당국의 학생탄압책동을 짓부수고 기어이 구속된 학우들을 모두 구원하여 백만학도의 품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8일

김정일영도자님을 흠모 각계 여성

각계 여성들이 이북 여성들을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정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북에는 남자들은 물론 우리 같은 여성들도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여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근로자들을 위한 참정치를 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펼치시는 민중사랑의 정치로 이북에서는 여성들이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혜택속에서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고 있다. 정말 이북 여성들이 부럽다.≫

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모씨는 이북 여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이 나라의 정사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공장지배인, 박사, 학사, 예술인도 있다. 여성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나라의 주인으로 한평생을 빛나게 살아간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여성들의 권리를 최정상에로 올려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발전산업노조파업관련 기자회견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발전산업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전소매각을 강행하고 노동탄압을 계속할 경우 제2의 연대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전력대란을 우려하면서도 전력대화는 거부하고 있다며 사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발전소를 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책임이라며 TV공개토론 등을 통해 먼저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발전노조원재워주기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9일 전국 14개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발전소매각반대범국민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철도민영화법안 추진시 총파업재개

철도노조는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고소와 징계 등이 계속되고 철도민영화법안이 추진될 경우 총파업투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도노조는 6일밤에 열린 중앙쟁의대책회의에서 파업철회이후의 투쟁계획을 이같이 정리했습니다.

공기업노조파업관련 시국선언

시민사회계 등 각계 인사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공기업노조파업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발전소매각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발전소의 미래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보호를 우선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조파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참된 권리를 찾자

각계 여성들이 국제부인의 날을 맞으며 단결된 힘으로 여성의 참된 권리를 찾고야 말 굳센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모씨는 이 땅에도 해마다 3월 8일 국제부인의 날은 찾아오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란 말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우리 여성들은 의연히 여성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해서 온갖 차별과 천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정치에의 참여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과 똑같은 업종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에게 훨씬 못미치는 임금이 차례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다. 취직과 교육, 노동조건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성들은 참을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여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은 인격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써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 장식의 대상, 쾌락의 대상으로 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이같은 현실을 더이상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여성의 참된 권리를 쟁취해야한다. 여기에 3월 8일 국제부인의 날을 맞는 참의미가 있는줄 안다.≫

민노당미주후원회 서명운동진행

아메리카주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미주후원회가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수감된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노동자, 학생들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체는 이번 서명운동이 지난 2월 제6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활동과제로 결정된 것으로써 아메리카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한국 당국이 지난해 종교단체와의 약속을 어기고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구속한데 대해 비난하고 이로인해 노동계와 진보적 운동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7일~8일

지금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민족대단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반통일적 행위를 계속 일삼고 있어서 민족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서 사시는 지식인 김인철씨의 글 ≪조선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까마귀 하루 열두번 울어도 까욱소리밖에 없다고 했다. 민족반역지 조선일보에 적당맞춤한 말이라 하겠다.

얼마전 조선일보는 이북에서 준비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했다. 반북과 반통일의 구시대적이며 반민족적인 대결고취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조선일보의 생리를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입은 비뚤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랬다고 진실을 파렴치하게 왜곡하는 이 매문지의 추태에 다시한번 혐오와 환멸을 느끼게 된다.

조선일보는 이북의 ≪아리랑≫공연에 대해 관광상품개발이니 파시즘의 정치예술이니 하는 악의에 찬 표현을 써가며 비방중상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현실판별능력을 잃어버린 정신병자의 헛소리가 아닐수 없다.

이북의 ≪아리랑≫공연은 명실공히 우리 민족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20세기 전반기까지만해도 동방의 은둔국에서 사는 약소민족으로 세계의 관심밖에 동떨어져 있던 우리 민족이 오늘날에는이북의 존엄과 더불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수많은 눈길을 보내는 강성민족으로 자랑떨치고 있다. 유일초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도 한손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이북의 강대성이 낳은 필연적 귀결이다.

조선일보도 사회의 눈과 귀임을 자처하는 언론지일진대 평양의 한마디에 세계정치기상도가 달라지고 역학관계가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을 못볼리 없고 못들을리 없을 것이다.

불우한 운명의 하소연인 듯한 아리랑노래를 숙명으로 여기며 불러오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이북의 위풍당당한 자태에서 민족의 무궁번영을 내다보며 행복의 아리랑을 소리높이 부르고 있다. 특히 천지개벽의 전변이 창조되고 있는 이북에서 그 노래소리는 더더욱 높다.

이북의 아리랑공연은 바로 이 엄연한 역사의 진실을 예술화한 것이다. 현실이 위대하여 그 반영인 예술도 위대하며 때문에 지구촌 각지에서 이북의 아리랑공연 참가요청을 저마다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북이 구태여 홍보활동을 펴지 않아도 공연관람을 위해 세인들이 구름처럼 평양으로 가리라는 건 불보듯 뻔하다. 이것이 어떻게 관광상품의 개발이 되며 더욱이 파시즘의 정치예술로 된단 말인가.

만일 조선일보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북의 ≪아리랑≫공연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들은 죄다 파시스트라는 건데 이거야말로 현대판 매카시즘적 발상의 극치라 아니할수 없다. 조선일보는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반북적대의식으로 해 흰 것도 검게 보이는 색맹환자, 초보적인 판단력도 없어진 치매증환자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이 땅의 각계 민중과 지구촌의 진보적 민중들은 극악한 민족반역지 조선일보의 독설에 피끓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이북의 아리랑공연을 헐뜯으려해도 맨발로 바위차기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울수 없듯이 역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오도할수 없다. 조선일보가 이북 비방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멸의 함정은 더더욱 깊어질 것이다.

민족반역지 조선일보는 우리 민중과 전세계 진보적 민중의 분노한 철퇴에 묵사발이 되지 않으려거든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8일

미상의농성자 석방운동

여러 단체들이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들의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중연대차원의 대책위원회는 2일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을 테러로 규정하고 강압수사하려는 검찰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단체는 학생, 노동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 구속자석방실천단을 구성하고 구속자석방탄원서에 각계 인사 서명과 10만명의 군중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대학교의 인문대학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학생들과의 모임을 갖고 당국이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투쟁에 참가한 이 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 등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구속한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은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이였다고 주장하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부시를 반대하기 위한 의로운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구속자석방과 보안법철폐,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월드컵계기로 적대행위 강화하는 미국을 규탄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월드컵을 계기로 이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한국 국방부가 월드컵기간 생화학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용 이동식 생화학탐지장비를 갖춘 미군 1개 소대가 서울에 새로 들어올뿐 아니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이 운용하는 조기경보기가 대북감시활동을 벌이며 동해상에는 이지스함까지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한국에서 미국이 자작극을 꾸미지 않는 한 생화학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해도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군까지 와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에 상기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이처럼 한국에 과잉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이북의 그 어떤 조그마한 건덕지라도 붙잡아 이북을 향해 전쟁의 불씨를 뿌리고 한반도전역을 저들의 지배하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신선한 체육행사마저 군사패권을 강화하고 긴장상태를 조성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이용해 먹으려는 미국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미군 전투력이 추가 배치되는 것 자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면서 미국은 월드컵을 이용해 이북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삼재부총재 사퇴

한나라당 강삼재부총재가 7일 부총재직을 사퇴하고 총재와 대선후보경선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삼재부총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전당대회는 민주적인 장이 돼야한다면서 모양만 갖추는 경선을 위한 경선은 당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며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삼재가 경선출마를 포기한 것은 이회창이 형식적인 경선을 통해 자신이 대선후보와 총재직을 독차지하려는데 대한 강한 반발의 표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증여세포탈혐의 주장

민주당 이낙연대변인은 이회창이 지난 97년 대선 당시 구기동 자택을 산 이후에 빌라와 잠실의 아파트 등 거주지를 네차례이상 옮겼지만 단 한번도 거액의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위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변인은 빌라가 비록 사돈집이라도 한달 임대료가 1천만원인 만큼 이총재가 47개월간 공짜로 살았다면 4억7000만원의 증여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증여세포탈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회창의 후원금이 지난해 2억9500만원이고 지난 99년에는 1억원에도 못미쳐 국회의원 가운데 235위를 기록했는데도 이회창은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고급주택을 임대할수 있었는지 해명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빌라 202호의 소유자는 이모씨로 돼 있지만 이를 전세내 이총재에게 빌려준 사람의 신원이 불투명하다며 신원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의원은 이회창이 97년 불법적으로 모은 대선자금 236억7000만원 가운데 검찰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110억원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정치자금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6일

미국 ≪년례마약통제보고서≫ 규탄
조선외무성대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마약문제≫라는것을 거들며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든것과 관련하여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얼마전 미국무성은 ≪년례마약통제보고서≫라는데서 확고한 증거도 없이 마약제조니, 밀수니 하면서 우리를 도발적으로 걸고들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 제도를 헐뜯고 고립압살해 보려는 부쉬행정부의 강권정책의 일환이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날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건전하고 고상한 생활양식이 확립되여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마약의 생산과 거래, 사용이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되여 있다.

이와 함께 약품생산 및 과학연구사업을 위한 정신자극성물질의 수입은 국가의 승인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 엄격한 질서가 확립되여 있으며 이 분야에서 국제마약통제리사회와의 호상통보 및 협력도 잘 보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쉬행정부가 우리를 걸고들다 못해 이제는≪마약문제≫라는것까지 내들면서 도발을 거는것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자들의 추악한 몰골만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뿐이다.

미국대통령에게 항의편지
따쥐끼스딴과 일본의 단체들

따쥐끼스딴과 일본의 단체들이 조선을 걸고 든 미국대통령에게 항의편지를 보내였다.

따쥐끼스딴 **김정일**장군명칭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2월 27일 자국주재 미국대사관에 보낸 항의편지에서 부쉬가 최근 아시아행각기간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걸고 든것은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어리석은 기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까밝혔다.

조선문제는 조선인민 내부문제이며 이것은 그들자체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라고 하면서 항의편지는 만약 미국이 21세기에 들어 선 오늘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정치적압력을 기도한다면 조선인민은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일본의 비정부조직인 ≪평화의 배≫도 최근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항의편지에서 부쉬가 ≪악의 축≫발언을 취소할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녀성찬가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혁명의 꽃, 나라의 꽃, 사회의 꽃으로 불리우고 있다.

다심한 어머니, 살뜰한 안해, 정다운 누나로 불리우는 녀성들의 밝은 얼굴과 명랑한 웃음은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화목을 꽃피우고 있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녀성찬가들이 많이 불리워 지고 있다.

특히 최근년간에 창작된 ≪안해의 노래≫, ≪영웅의 안해될줄 꿈에도 몰랐어요≫, ≪준마처녀≫ 등이 그 대표적찬가들이다.

가요들은 말없이 남편의 일을 도와 주고 가정을 알뜰하게 꾸리며 자식들을 영웅으로 키우는 조선녀성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꿈에도 생각 못한 영웅의 안해된 녀성의 기쁨, 로동생활에서 녀성들의 근면성을 생동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시기에도 녀성찬가들이 많이 창작되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웠다.

그중에는 ≪녀성은 꽃이라네≫, ≪녀성의 노래≫, ≪사랑하시라≫, ≪그네뛰는 처녀≫, ≪비단짜는 처녀≫, ≪처녀들은 귀속말로 속삭이였네≫, ≪우리공장 처녀들≫, ≪평양의 딸들≫, ≪처녀의 손수건≫ 등도 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중지 요구
여러 나라 인사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최근 또다시 조선을 걸고 든 부쉬의 망발을 규탄하였다.

기네통일진보당 정치국 위원이며 국회 제2부의장인 쎄쿠 얀싸네는 2월 28일 담화에서 부쉬가 조선이 대량살륙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수출≫하고 있기때문에 마치 저들에게 ≪위협≫이나 되는듯이 떠벌인 데에는 모든 나라들을 ≪반테로련합≫에 얽어매놓고 저들에게 맞서는 나라들을 제마음대로 다스리려는 속심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미국이 조선을 다른 나라와 같이 보고 덤벼 든다면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기네인민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같은날 인디아대외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인 국회의원 케이. 엠. 칸은 성명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묘사한것은 무근거한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압살책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하였다.

나이제리아 아부쟈시국립도서관 관장 엘. 엔. 익파힌디는 2월 27일 담화에서 부쉬가 아시아행각기간에 조선에 대하여 연구해보거나 가늠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발언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저렬성을 집중적으로 로출시키고 미국을 망신시켰으며 미국을 세계적인 항의와 조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쥐. 데바라쟌도 2월 25일 담화에서 부쉬가 ≪악의 축≫이라는 망발을 하여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도 최근 또다시 아시아행각기간에 조선인민이 스스로 선택한 제도를 변경시키려고 책동한데 대해 규탄하였다.

교원대학 기자학급 ≪김정일학급≫으로
몽골

몽골 의 ≪고르왕-에르데네≫ 교원대학 3학년 기자학급이 ≪**김정일**학급≫으로 명명되였다. 대학행정리사회 회의에서는 3학년 기자학급을 조선의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존함을 모신 학급으로 명명한다고 결정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를 3월 27일 평양에서 소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2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를 주체91(2002)년 3월 2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1(2002)년 3월 7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를 주체91(2002)년 3월 27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대의원등록은 주체91(2002)년 3월 25일과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1(2002)년 3월 7일
평양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 개선강화할데 대한 로작 40돐 기념

≪로동신문≫ 8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전적 로작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발표 40돐에 즈음하여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론설은 로작은 모든 당조직들이 집체적령도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해나가도록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게 한 불멸의 지침으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고 하면서 론설은 결과 각급 당조직들과 당세포들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충성의 전위대오로 강화되고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방법, 사업기풍이 철저히 세워지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로작은 또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하나로 묶어 세워 당의 령도적지반을 굳건히 다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온 강령적지침이라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우리 당을 사상의 순결체로 튼튼히 꾸리게 한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해 굳건히 계승발전되여 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고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가 극도에 이르고 국제혁명운동안에 기회주의가 대두하여 여러 나라 사회주의집권당들이 변질붕괴되는 복잡한 사태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 올수 있었다.

(끝)

녀성들은 강성대국건설의 힘 있는 력량이다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3월 8일

오늘은 3.8국제부녀절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전투적호소 따라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날을 맞는 우리 녀성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행복이 넘쳐 나고 있다.

녀성들을 강성대국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당당한 역군으로 내세워 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21세기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녀성들의 슬기와 혁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치려는것은 우리의 전체 녀성들의 한결 같은 신념이며 맹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녀성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고 그를 힘 있게 떠밀어 나가야 온 사회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앙양이 일어 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부터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메고 나갈 힘 있는 력량으로 보시고 녀성문제해결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강반석녀사께서 반일부녀회를 무으심으로써 우리 나라 녀성들은 처음으로 대중적녀성조직에 망라되여 혁명운동에 힘차게 떨쳐 나서게 되였으며 녀성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 나갈수 있게 되였다.

녀성해방위업실현을 위한 자랑스러운 로정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찬란히 아로새겨 져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어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도 우리 녀성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조국건설의 역군으로 키워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따뜻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신 **김정숙**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업적은 오늘도 우리 녀성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간직되여 있다.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녀성들에게 사회적인간의 가장 보람찬 삶을 안겨 주시고 조선녀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 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 오시는 전 기간 언제나 녀성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녀성들에게 친어버이의 사랑과 은정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도 녀성들을 위한 은정어린 시책들을 수많이 베풀어 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녀성군인들과 녀성일군들의 수고를 먼저 헤아리시며 친어버이 사랑을 부어 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며 녀성들의 혁명과업수행은 물론 옷차림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 주시는분이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아래 산골마을의 새 생명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산꿀과 귀한 보약재들이 산모들과 갓 태여나는 아이들에게 먼저 돌려 지는것과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 ≪녀성해안포병과 약크림≫과 같은 혁명일화들이 수없이 꽃 펴나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사회적인간의 가장 보람찬 삶을 누려 가는 우리 녀성들처럼 행복하고 긍지 높은 녀성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 가고 있다.

력사에 류례 없는 시련속에서도 우리 녀성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견결히 옹위하고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구호나무를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고 뜻밖의 수해로 조성된 위급한 정황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끝까지 보위한 우리 시대 참다운 녀성혁명가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는 사람들을 경탄시키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거창하게 벌어 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는 우리 녀성들이 큰 몫을 맡아 해제끼고 있다. 우리 녀성들속에는 한생을 후대들을 위한 성스러운 교육사업에 묵묵히 바쳐 가는 숨은 애국자도 있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쏟아 부으며 현대과학의 높은 경지를 개척해 나가는 미더운 과학자도 있으며 어려운 일터들에서 말없이 고귀한 땀을 바쳐 가는 공로자, 로력혁신자들도 수없이 많다. 우리 녀성들속에서 자강도안의 모범적인 녀성일군들과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녀성일군들이 나오고 정성옥, 박옥희, 현영라와 같은 녀성영웅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긍지이고 자랑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지닌 우리 녀성들이 강성대국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힘 있게 떠밀고 나가고 있기에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우리 혁명이 크나큰 활력에 넘쳐 전진하고 우리 사회는 언제나 끝 없는 생기와 열정, 미래에 대한 희망과 락관이 차넘치고 사랑과 화목이 꽃 펴나는 대가정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어버이품속에서 자라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우리 녀성들이야말로 사회의 꽃, 나라의 꽃, 혁명의 꽃이다.

오늘 우리 녀성들앞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 녀성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심장마다에 새기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오늘의 총 진군에서 조선녀성의 슬기와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녀성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은 혁명전사들의 제일가는 생명이다. 녀성들은 자신들에게 오늘의 긍지 높고 보람찬 삶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말고 장군님을 언제나 깨끗한 량심과 순결한 도덕의리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여 온 조선녀성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 갈 굳센 각오를 가져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 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워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 바쳐 보위하는 견결한 녀성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심장깊이 새기고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

녀성군인들은 혁명의 총을 잡고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제일근위병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일당백구호를 높이 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만능병사가 되여야 한다.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 녀성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지니고 위대한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드는 군인가족녀성들은 우리 녀성들이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모든 녀성들은 군인가족녀성들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열렬한 옹호자가 되여야 한다. 가정혁명화를 다그쳐 온 나라 가정을 엄복순동무의 가정과 같은 총대가정, 혁명적군인가정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친어머니, 친누이의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군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조선녀성의 슬기와 기개를 더욱 높이 떨쳐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고상하고 혁명적이며 지혜롭고 강의한 조선녀성의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1950년대 가렬한 전화의 나날과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녀성들속에서 발휘되였던 영웅적투쟁정신과 혁명적기백이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에서 꿋꿋이 이어 져야 한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고귀한 삶의 자욱을 남기겠다는 불 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자기가 일하는 모든 초소마다에서 끊임 없는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녀성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맡겨 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한 투쟁에서도,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녀성들이 한몫을 단단히 맡아 해야 한다. 과학, 교육부문의 녀성들은 원대한 포부를 안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새 세대들을 당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드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출판보도, 문학예술부문 녀성들속에서도 선군시대를 진감하는 기사, 편집물들과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이 폭포처럼 쏟아 져 나오게 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녀성들이 앞장 서야 한다.

모든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의 면모를 새 세기 맛이 나게 혁명적으로 일신하는데서 녀성들의 몫이 대단히 크다. 모든 녀성들은 자강도녀성들처럼 자기 사는 일터와 마을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꾸리며 보다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녀성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 일터마다에 언제나 혁명적기백과 랑만이 넘치고 생활의 정서와 향기가 꽃 피게 하여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 매는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가정의 궂은 일, 마른 일을 묵묵히 도맡아 해가며 남편들과 자식들을 맡은 혁명과업수행에 충실하도록 말없이 떠밀어 온 우리 녀성들의 수고를 조국은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 모든 녀성들은 조국과 혁명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어려울수록 생활을 더욱 이악하게 랑만적으로 꾸려 나가며 자식들을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위대한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로 훌륭히 키워 내세워야 한다. 자기자신뿐아니라 가족과 후대들이 성스러운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 나가도록 교양하고 적극 이끌어야 한다.

혁명하는 시대의 녀성들에게는 순간의 안일과 해이도 허용될수 없다. 모든 녀성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 나가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한결같이 동원될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사소한 침습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반제자주를 지향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적녀성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존엄과 기개를 온 세상에 힘 있게 떨쳐야 할것이다. (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상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2회
림형수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8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번시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상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 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키고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 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져야 사회주의를 공고히 다질 수 있으며 그 어떤 강풍이 불어와도 사회주의를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것이 역사에 의해 확증된 진리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불러일으켜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킬 수 있고 모진 광풍속에서도 사회주의 붉은 기를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선 충실성교양, 신념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국상직후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당의 기본구호를 제시하시고 당 사상사업을 철두철미 이 구호실현에로 지향시키시면서 수령님의 위대성에 교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주체84(1995)년 여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지방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실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때에도 일군들에게 지휘성원들이 높은 충성의 열정을 안고 자기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동무들 자신부터 당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지휘성원들인 동무들이 누구보다 당에 충실하고 당을 받드는 신념과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은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다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닥쳐온 시련앞에서 순간이라도 신심을 잃지 않도록 신념교양에도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적 신념을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주체83(1994)년 11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그 종국적 승리의 필연성을 신념으로 새겨 안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사상전선의 진두에 서시어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주체85(1996)년 1월 14일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자신의 인생관이라고 ≪죽음을 각오한 자를 당할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우리 혁명가들이 가져야할 신념이고 배짱이라고 하시며 필승의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를 안겨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처럼 간고하고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사상을 생명으로 틀어쥐시고 충실성교양, 신념교양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또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혁명전통을 부인하고 말살하면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먹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에서 혁명전적지답사가 가지는 의의를 헤아리시고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새세대 청소년 학생들의 답사행군조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불멸의 혁명위업이 깃들어 있는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1월 1일 새해 첫 현지시찰 노정을 어버이 수령님께서 찾으시었던 어느 한 인민군부대 관하의 다박솔중대로 정하시었습니다. 그 날에 이어 끊임없이 계속된 군현지시찰과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대한 현지지도의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버이 수령님의 현지사적지부터 돌아보시는 것을 어길 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이러한 현지지도과정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사적을 더 잘 꾸리고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도록 이끌어주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현명한 영도에 의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혁명전통교양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것이 역사에 의해 확증된 진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었습니다.

주체87(1998) 11월 22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롭게 개건확장된 신천박물관을 몸소 찾으시어 이런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사실 광복직후에는 계급교양을 할 사이도 없었다. 그때에는 건당, 건국, 건군사업을 하느라고 계급교양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수많은 인민들이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순한 양처럼 적들에게 끌려가 학살당하였다. 신천군에서 학살된 사람들이 적들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맥없이 죽은 것은 통탄할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나시어 ≪이것은 지난날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당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87(1995)년 11월 22일 신천박물관에 대한 현지지도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급사업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전환적 계기를 열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천박물관을 더 잘 꾸리는 것과 함께 평양과 여러 도시들에 계급교양관을 새로 설치하고 그 참관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시었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계급교양실을 꾸리고 그를 통하여 계급교양사업을 일상적으로 적극 벌려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 계급교양실이 꾸려지고 많은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도 계급교양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계급교양의 거점들이 새로 튼튼히 꾸려지고 계급교양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게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새세대 청년학생의 계급의식이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또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사람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화할 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었습니다.

주제84(1995)년 새해의 첫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내나라 내 조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이상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정신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조국에 대한 시와 노래를 통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역사에 대한 선전을 잘하여 인민들의 가슴속에 조국애를 키워주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과 일터, 국토를 잘 꾸리고 가꾸기 위한 힘있게 벌리는 실천투쟁속에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1월 28일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 사업은 일터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사상사업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애국주의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습니다.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애국주의화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모두 다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뿐 아니라 참다운 애국자로 키울 데에 대한 숭고하고도 원대한 뜻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시면서 우리 당 사상사업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추동하는 정치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시었습니다. 또한 자신께서는 총대와 함께 붓대를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이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심으로써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의 사회주의 사상진지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군기지, 더 이상 내줄 수 없다

15일 있을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회담을 앞두고 미군기지 반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9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 LPP관련 공동대응 수도권 대책모임(가) 주최로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 이전비용 부담 반대, 미군기지 반환 촉구 수도권 연대집회 가 노동자, 시민, 학생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용산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에게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편지를 보낼 때 주소를 캘리포니아 주로 써서 보낸다≫고 말한 뒤 ≪우리땅을 우리 맘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며 개탄했다.

또, 이규재 위원장은 ≪최근 주한미군의 범죄나 환경문제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며 ≪한국전쟁 때의 민간인 학살, 신자유주의 경제침탈 등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군반대 가 아닌 미군 축출 을 외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 송파, 수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각 지역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에서 의정부 범시민대책위원회 배승용 집행위원장은 ≪의정부 전체 땅의 10분의 1일이 미군 공여지≫라며 ≪의정부 주민들은 지금까지 미군기지 주변의 범죄와 퇴폐문화등으로 굴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배승용 집행위원장은 ≪의정부에 건설하려는 24만평 규모의 대규모 미군기지를 막기위해 의정부 동부역 광장에서의 천막농성, 미군기지 반대 주민투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활동내용을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송파와 수원의 주민들도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보고해 참가자들의 격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주최측은 결의문을 통해 ≪쓸모없는 훈련장을 반환하는 대신 의정부, 오산, 평택, 포항 등의 도심지 땅 75만평을 추가 공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LPP의 내용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하고, 미군기지의 전면반환을 주장했다.

결의문에서는 ≪주한미군이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부당하고 현실성 없는 조건을 내세워 영구주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뒤 그 근거로 터무니없는 이전비용 전가 , 용산미군기지 내 고가도로 신축계획 발표 등을 들었다.

주최측은 △LPP 후속회담에서 미군기지 반환일정 명문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용산가족공원까지 행진을 한 후 오후 5시경 집회를 마무리했다.

장동렬 기자
통일뉴스 2002/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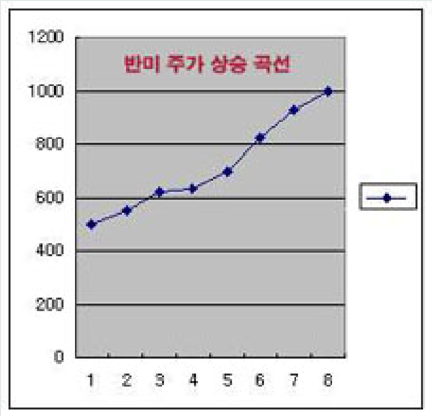
반미주가 연일 최고치. ≪과열양상 띤다≫

디지털말 설문 결과 ≪반미 찬성 87%≫

≪반미주가≫가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촉발된 국민적 반미정서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의 편파판정으로 인해 최고점을 찍고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연이어 차세대 전투기 사업(F-X사업)과 관련해 국방부 조모 대령이 ≪우방에 점수를 더 줘라≫는 외압사실을 폭로하자 미국의 F-15 전투기 판매를 둘러싼 잡음이 ≪반미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주가 상승을 이끄는 다른 호재(好材) 역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6일 미국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8~30%의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의 ≪반미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부시의 '악의 축' 발언, FX전투기 구매압력, 솔트레이크시티 겨울올림픽 부당판정 등으로 반미감정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투표수 909표)	
1. 이유있는 반미감정이므로 찬성한다	793 표 (87%)
2. 국익에 도움 안되는 반미는 반대한다	40 표 (4%)
3. 감정적이긴 하나 문제될 것은 없다	59 표 (6%)
4. 너무 지나치다 자제해야 한다	17 표 (2%)

≪반미주가≫가 한국민들의 반미 정서로 과열양상을 띠자 급기야 미국 정부는 한국내 반미 투자자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비자 제한 조항을 신설, 개미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비자 신청시 가족사항이나 여행 일정등 간단한 것만 묻던 대사관측이 지난 4일부터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해 아이나 여성에게까지 군경력, 사회단체 참가, 학력, 최근 10년간 방문했던 국가 등을 묻고 있어 마치 테러리스트를 선별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와 같은 ≪반미주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인터넷신문 ≪디지털말≫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909명중 87%인 793명이 ≪이유있는 반미정서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반면 이 설문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과 ≪너무 지나치니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합해서 6%인 57명에 그쳤다. 반미주식 보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일부 시민운동 단체 애널리스트들은 ≪반미주가는 당분간 상한가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서강대 이모 교수는 모 일간지 기고를 통해 ≪성급하게 달아오르는 국민감정으로 인해 쉽게 흥분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반미 투자자의 과열양상을 꼬집기도 했다.

김재중 기자
디지털말 2002/03/06

부시, 이북 등에 핵공격 준비 명령

조지 W.부시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이북과 중국, 이란, 이라크 등 최소한 7개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준비하라고 군에 명령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비밀 미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부시 행정부가 핵, 생물, 화학무기를 이용한 공격과 같은 전투상황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규모, 신형 핵무기의 생산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핵공격 가능 대상국가에 올라 있는 나라에는 이북, 중국, 이란, 이라크 이외에 러시아, 리비아, 시리아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LA 타임스는 ≪핵사태 재고≫라고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서명했고 지난 1월8일 의회에 제출됐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관리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핵공격 계획을 준비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공격 가능 대상국가 목록이 처음 밝혀진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2/03/09

제발 국정원의 테러를 방지해 줘

반인권 악법에 손을 찍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을 것

지난 3월6일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물위로 떠올랐다. 지난 2월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는 오는 3월 13일경에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테러 방지법은 작년 국정원의 기습적인 입법예고가 발각되고 나서 그 법의 폐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많은 국회의원들조차 그 법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거의 모든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공동투쟁≫은 3월6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테러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정원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까지 가능케하는 테러방지법은 상설비상계엄법≫이라 말했다. 류은숙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다른 부분은 합의조차 못하고 있는데도 유독 테러방지법안만은 어떤 절차도 없이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며 ≪작년 입법예고도 국정원 홈페이지 구석에 눈에 보이지도 않게 띄어 놓았으며 입법예고도 불과 10일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3월11일 한번 모여 비공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는데 누가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의 졸속처리를 개탄했다.

이날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에는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 확대와 권력남용, 그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정 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비극과 파탄을 예방하라.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임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먼저 한나라당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앞에서 경찰이 가로막아 당사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잠시 후 한나라당 당직자 한 명이 나와 참가자들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한나라당에서 다음은 민주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역시 민주당 앞은 경찰이 막았고 참가자들은 담당의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참세상뉴스 2002/03/07

북, 월드컵기간 미군전력 강화비난

이북은 9일 월드컵기간 테러예방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력강화 방침은 ≪우리(북)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범죄적 기도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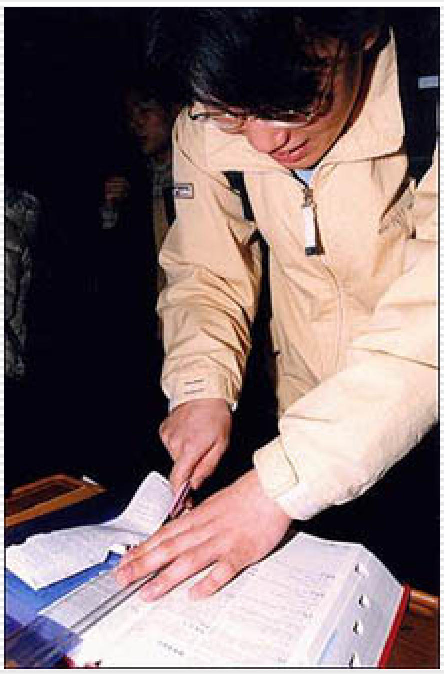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미제가 세계축구선수권대회 기간에 그 무슨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형 이동식 생화학탐지장비를 갖춘 미군 생화학전 부대를 남조선에 투입하는 한편 조선반도 상공에 조기경보기를 띄워놓고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며 조선동해상에 이지스함까지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방송은 월드컵기간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주한미군의 전력강화는 ≪긴장상태를 조성함으로써 마치도 우리에게 그 무슨 테러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기라도 한 듯한 그런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세계여론을 오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송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데 대한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악랄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2/03/09

고대법대 이색시위 ≪법전을 찢어라≫

신입생에게 ≪법전≫배포하며 ≪국가보안법≫항목 찢기


고대 법대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국가보안법 항목이 담긴 부분을 칼로 찢어내고 있다

지난 7일, 8일 양일간 고려대 법대 학생회 주최로 법학과 1층 로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이색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이색 시위는 고려대 법대 학생회에서 공동 구매한 법전을 신입생들에게 나눠주며 쉬는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 항목이 담긴 부분을 찢어내는 행사이다.

이번 이색 시위에 참가한 이 모양은 ≪사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는 갖고 있다≫고 말했고 한 모군은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써 국가보안법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 노진석 군은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상징적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전하며 ≪이후 이자제한법 개정 운동 등 각종 법률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총련의 합법적활동 보장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기구가 결성된다.

지난 1월 31일 향린교회에서 민가협, 유가협, 전대협동우회, 통일광장, 전국연합, 범민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4월혁명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준비모임을 구성했다.

1997년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이적규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1200여명의 대학생 대표자들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수백여명의 수배자들이 갈 곳을 잃고 학교와 거리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한총련의 대의원은 각 대학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단과대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사회에서는 물론 학교 행정 기관과 교수님들로부터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한총련은 해마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표자들로 새롭게 구성, 운영되는 조직이며, 이들의 논의를 거쳐 매해 다른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민주적이고 실천적인 대학생들의 조직이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97년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후, 강령의 개정과 활동방식의 변화 등을 통한 ≪한총련의 거듭나기≫를 외면한 채 오늘까지도 대의원을 수배하고 검거하여 구속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총련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체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수배와 검거의 위협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매인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 부당하게 얽매인 낡은 탄압의 사슬을 끊어주는데 동참해 나서야 할 때이다.

현재 대책위 준비모임은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책임지고 있으며, 집행책임자로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그리고 집행실무자로 강위원 5기 한총련 의장과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를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후 학계, 종교계, 인권단체는 물론 시민운동 진영까지 개인자격으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으고 준비에 들어갔다.

---

1.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결성
   - 3월14일 오후 4시 향린교회
   대책기구 건설을 위한 설명회
   - 3월20일 오전10시 기독교 회관.
   대책위원회 발족식
   한총련 문제의 유엔인권위 제소 선언식
2. ≪한총련 이야기≫3월 7일 발간.
3. 대책위 홈페이지 개통

민주노동당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2012년에 제1야당 된다 (2)

2004년 원내진입, 2008년 교섭단체, 2012년 제1야당

지역주의구도 청산이나 언론개혁, 한반도 평화를 대북포용정책 등도 ≪진보≫를 나누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 내 개혁그룹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노무현, 김근태는 이회창과 비교대상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회창은 미국에 가서 햇볕정책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통일정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지역주의 청산문제의 경우 이회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진보의 기준으로 보면 틀리진 않는데,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안정책 개발을 핵심으로 봐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인정하면서 ≪개혁≫을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시장 개방, 연봉제 도입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 강화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언어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안티조선, 언론개혁운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봅니까. 노무현만큼도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되어서 민주노동당을 깎아내리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만큼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당이 있을까요? 진중권씨 등 안티조선의 핵심논객들 중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많습니다. 저 역시 언론노력 위원장 출신으로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언론개혁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또한 ≪월간조선≫에서 몇 차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그래도 대표님은 노무현, 김근태 등과 이회창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내에서 나오는 여러 주장들을 보면 한나라당, 이회창보다는 노무현 등 민주당 내 개혁인사에 더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두 똑같다≫는 식의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오히려 진보정당이 그들의 ≪개혁성≫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른바 ≪신비판적 지지론≫이 나돌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대선 때 소위 ≪개혁인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보세력의총결집체인 국민승리21의 권영길을 지지해야 하는데 50년만의 정권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권교체하고 다음엔 무조건 진보정당을 육성 ·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회창 집권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과 차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다음 총선에도, 그 다음 대선에도 또 나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묻혀 있어야 합니까.

강준만교수의 경우, 얼마 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정당이 ≪민주당(개혁인사) 때리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은 실제 득표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우리가 노무현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지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무현쪽에서는 당내 경선에 맞춰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를 순방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범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개혁그룹을 지지해야 하고, 거기에 표를 던져야 한다구요. 어차피 권영길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요. 또 일부는 노무현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면 권영길은 지지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퍼드리고 다닙니다. 실제 설득당하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노무현의 ≪개혁성≫을 살려주는 표현보다는 과연 노무현과 권영길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차이점≫만 말할 뿐 노무현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이 말하는 ≪진보≫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반대≫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 철도민영화 반대, 호주제 폐지 등 상당히 진보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주장도 안한다면 개혁인사로 불릴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차별성이 있죠. 하지만 김대중대통령도 과거에 자신이 집권하면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집권을 해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대통령만큼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수정당체제 틀속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노무현 역시 기존 보수정치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체성도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탈당을 했으면 합니다. 노무현은 민주당을 벗어나서 진보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 역사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이 만일 탈당해서 진보정당과 함께 한다면 진보정당의 성장에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까.

당장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건 과대망상이죠. 하지만 현재의 정치구조에서는 과거 DJP연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보수세력들 간의 연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당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보 대 보수 구도 구축을 위해서 진보세력이 차근차근 힘을 쌓아가야 합니다. 선거에 나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수세력 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 한두 마디 내뱉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부터 보수정당 내 ≪개혁인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해 왔습니다. 당장 뛰쳐나와야 한다구요. 나와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야 한다구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노무현이 탈당해 나온다면 민주노동당은 이미 진보진영에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를 제안해 놓은 상태니까 저와 진보진영 대선후보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최근 ≪3당합당≫, ≪내각제신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무현 등 민주당 내 개혁그룹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는 느낌이더군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흘러간 물은 방아를 못 돌린다고 했는데, 이미 과거에 한번 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던 것을 되풀이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더군요. 표를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구태의연한 정치행위를 또다시 반복하는 꼴입니다. ≪쇄신≫을 내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철판을 깔 수 있습니까. 노무현이나 김근태 등 민주당 내 개혁그룹은 당연히 반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본질적인 개혁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마저 동의하면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 보수정치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변화속에서 진보의 토대를 조금이라도 구축해 내는 것이 절실합니다.

2016년 집권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전체 진보진영이 하나로 뭉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민주노동당은 전체 진보진영에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를 제안한 상태인데 그것이 대표님이 말한 그 토대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까.

아주 큰 규모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범진보진영 대선후보 추진단만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전농, 전빈련, 한국노총 등 여러 대중조직의 동의를 얻어 폭넓은 참여를 끌어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예비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게 된다면 민주노동당의 ≪재창당≫ 추진사업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당과의 통합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방선거, 대선 전에 어려워진다고 판단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 얼마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1백만 표를 얻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그건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득표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진보 대 보수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민주노동당은 2016년에 반드시 집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권 1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에 원내진입, 2008년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 4년 뒤인 2012년에는 제1야당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현 시점에서 비록 의석은 없지만 우린 이미 자민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3당의 위치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결코 몽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되는 것이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인터뷰
(<말>지 3월호 중에서)

진보넷, 홈페이지 폐쇄조치에 반발

지난 5일 경찰이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진보넷 서버를 압수수색할 것이란 말이 나돌면서 진보넷,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산개투쟁을 벌이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에게는 핸드폰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요한 연락수단. 여관, 사우나등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발전노조원 수색에 나선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눈을 돌려 발전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상 폐쇄조치로 해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결국 발전 노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진보넷은 6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치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발전노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말 2002/03/06

반전반미투쟁과 6.15실천투쟁의 결합에 대하여 (1)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0호)

≪지금 우리 민중은 미국의 조종하에 새해 벽두부터 신형미사일도입을 공표하고 북침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올해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염원에 도전하는 군당국의 작태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군당국은 미국으로부터 2004년까지 사거리 300킬로미터의 신형 다연장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 111기를 도입할 것을 공개했다.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 미사일이 미국외에 그 어느 나라에도 도입되지 않은 신형살인무기이라는 사실이다.

군당국이 미국과 공모하여 새해 정초부터 신형 전쟁장비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정세를 고도로 긴장시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에로 몰아가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며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군당국의 신형미사일도입책동을 미국의 대북침략전쟁전략에 편승해 동족을 압살하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대범죄행위로, 6.15공동선언실천으로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7천만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에 정면 도전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로 낙인하고 이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오늘 이 땅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남북사이에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초미의 과제이다.

그러나 군당국은 6.15공동선언이행을 표방하면서도 뒤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고 반북대결전쟁책동으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에 대한 주적론을 공공연히 제창하며 북침전쟁연습을 배가로 증가한데 이어 또다시 국민혈세를 탕진해 최신형전쟁장비들을 대량 끌어들이려는 한국 호전광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는 새 전쟁위험이 날로 커가고 남북관계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대행진은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군당국의 신형미사일도입책동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계획적인 도발행위로서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사태발전에 대해 자신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군당국은 온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살인무기도입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외세와의 공조로 동족모해압살을 꾀하면서 6.15공동선언실천을 향한 민족의 앞길에 먹구름을 몰아오는 반역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북침기도를 버려야 하며 이 땅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전국민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일치단결하여 미국과 그와 결탁한 호전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전반미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평화와 통일을 귀중히 여기는 전국민과 함께 견결한 반전반미투쟁으로 전쟁위험의 화근을 제거하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02. 1. 14)

≪새해를 맞은 우리 민중은 올해에 6.15공동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우리 민중의 부풀어 오른 희망과 기대와는 상반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부시정권의 호전심복들이 이 땅에 꼬리를 물고 날아들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에 기어든 3명의 국회의원은 미국이 이북을 걸고 들며 악랄하게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지지자들이며 17일에 날아든 미하원의장을 위시한 공화당패거리들은 악명높은 ≪주전론≫자들이다.

뒤이어 이 땅에는 미국의 ≪전쟁내각≫우두머리들인 미국방장관 럼스펠드와 미합참의장이 날아들 예정이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오는 2월 중순에 침략전쟁의 괴수인 부시가 직접 전쟁사환꾼들을 끌고 서울행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봄철도 아닌 엄동설한에 줄지어 이 땅에 쓸어들고 있는 이들은 결코 ≪평화의 사도≫도, 한가로운 ≪관광객≫들도 아니다.

이 땅에 날아드는 자들마다 찾는 곳은 미침략군기지

➡

광고

편집국보도집1

통일여명 편집국

통일여명 편집국이 그간 발표한 보도를 모아 ≪통일여명편집국보도집≫을 발간합니다.

주체89(2000)년 12월에 창간된 월간 ≪통일여명≫이 어느덧 15회를 맞게 되었으며 지난 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도된 그 보도도 50회를 넘게 되었습니다.

50회가 넘는 통일여명편집국보도에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와 우리 편집국이 활동가동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대외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통일여명≫의 편집국명의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활동을 통일여명편집국보도로 총화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정세전망과 통일전선, 진보정당 등 민족민주대오가 풀어야하는 당면한 이론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주체적 견해를 명확히 피력함으로써 그 해결에 일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지난 활동에 대한 총화와 향후 투쟁전망을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각지에 산개해 있는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견해와 입장의 통일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자신의 견해를 책임있게 발표함으로써 익명이 횡행하는 인터넷공간에서 예의와 질서를 수립하는데 하나의 전형을 창조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공보, 통보, 예고, 논문, 정론, 일문일답, 호소문, 추천, 축하, 풍자 등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청년주체주의자들의 사업작풍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초기에는 통보로 통일시켜 언급하다가 점차 공보, 통보로 분별하며 사용하였으며 33호부터는 보도앞부분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가르침과 당의 지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33호까지의 조회수(인터넷전국연합게시판) 합계 16758회, 평균 524회가 말해주듯 많은 동지들이 통일여명편집국보도를 열람하며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그간 ≪통일여명≫을 애독하고 그 보도에 지지를 보내준 여러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발간되는 ≪통일여명편집국보도집1≫은 통일여명편집국보도 1호에서 50호까지 순서대로 편집한 자료집으로서 동지들이 보도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편집국은 향후 내용에서 더욱 충실하고 형식에서 더욱 참신한 보도를 내오기 위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들과 최전방군부대들이며 그들이 벌여놓고 있는 꿍꿍이들은 ≪한미군사공조체제≫강화를 위한 화약내 짙은 전쟁모의뿐이다.

한국은 지금 위싱턴의 전쟁불청객들로 붐비고 전쟁모의판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호전적인 부시정권의 출범으로 이 땅에서는 6.15공동선언이행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고 화해와 단합에로 나아가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로 치닫고 한반도에는 신냉전의 기류가 확산되게 되었다.

보라! 그 죄악의 진상을!

부시는 백악관에 들어앉자마자 있지도 않는 이북의 핵문제, 미사일문제는 물론 ≪재래식무기감축≫문제까지 거들며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동족간의 대결을 조장하기에 열을 올려왔다.

≪9.11≫사건이후에는 한반도에 기동타격무력을 급속히 전개하는 것으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아프간전쟁이 결속단계에 들어서게 된 오늘날에 와서는 ≪반테러전쟁의 다음 목표는 이북≫이라는 도발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노골적인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침을 위한 미제의 무력증강책동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위험단계에 이르렀다.

워싱턴의 군수업체들에서는 북침전쟁을 위한 초강력 지하관통무기로 개발된 ≪디프디거≫, ≪AGM-86D≫로 불리우는 최첨단살인무기들이 다량생산에 들어갔으며 사정거리가 300km인 신형미사일까지 한국으로 다량반입되고 있다. 한반도주변에는 미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대규모의 침략무력이 배치된다고 한다.

부시정권의 이 같은 책동으로 말미암아 6.15공동선언발표후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던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가 전쟁상인들을 끌고 이 땅에 날아드는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차단하고 이남당국자들을 저들의 전쟁전략에 끌어들여 무모한 북침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쟁행각이다.

사태는 6.25직전에 있은 덜레스의 전쟁행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아프간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꽃이 바야흐로 극동의 한반도에로 튕길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9.11≫사건이 일어나자 전역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해 정세를 긴장시켜 남북관계를 교착상태에 몰아넣은 이남의 군당국자들이 오늘에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합세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주적불변론≫을 제창한 국방부장관 김동신은 ≪올해에는 한미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는가 하면 외교통상부장관 한승수는 ≪한미동맹강화를 올해 외교의 기본축으로 삼고 어느 해보다도 한미안보동맹관계를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떠벌였다. 분노의 피가 끓게 하는 매국배족의 반역넋두리가 아닐 수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동족과 공조해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매국이고 동족과의 공조는 애국이다.

그런데 함께 손잡고 통일해야 할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북압살을 노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적극 가담하며 반북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공모해나선 이남의 군부호전세력이야 말로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해 우리 민족통일의 길을 차단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도발한 전쟁의 불길을 극동의 한반도에로 확대하려는 미국부시정권의 전쟁확대책동에 야합해 나선 이남 호전세력의 공모결탁행위로 오늘 이 땅에서는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결은 전쟁이며 전쟁은 민족공멸이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이 땅에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려는 것은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확고한 결심이다.

내외반통일호전세력들의 그 어떤 책동도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이 불같은 통일지향과 의지를 절대로 막을 수도 꺾을 수도 없다.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미국과 그에 야합해 나선 이남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공조책동에 분격한 각계층 민중의 분노의 함성이 거세차게 터져오르고 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견결한 반미자주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북침전쟁책동과 한국에 대한 식민지영구화책동을 즉각 걷어치우고 이 땅에서 살인무기와 침략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역대적으로 외세와 야합하여 반북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해온 이 땅의 사대매국노들은 모두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했다.

현당국자들은 여기에서 응분의 교훈을 찾고 미국과의 전쟁공조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동족과의 공조로 6.15공동선언이행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장장 반세기이상 자주통일을 위해 피흘리며 싸워온 각계 애국민중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단합에서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좌시묵과할 수 없다.

평화에 살고 자주와 통일에 살려는 이 땅의 전국민은 한미호전세력들의 전쟁공조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경향각지에서 반미, 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자!

거족적인 반미진출로 부시와 럼스필드의 전쟁행각을 분쇄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한미전쟁공조책동을 성토함,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02. 1. 24)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90년대 통일을 위한 전민족단합의 대헌장(1)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북과 남, 해외의 어디에서나 통일열기가 고조되는 속에 완화와 화합에로 나아가던 정세가 급격히 랭각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1993년 정초에 들어와 미구과 남조선당국자들 그리고 국제 반동들이 그 무슨 북의 핵의혹 이라는 구실을 들고 중단했던 팀 스피르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선포했고 국제원자력기구를 내세워 우리 나라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을 강요하며 나아가서 유엔안보리사회에서 그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 이후 공화국도 그 뒤를 따를 것이라 타산했던 저들의 평화적 이행전략 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게 되자 보다 악랄한 흉책으로서 있지도 않은 이른바 핵문제를 들고 압력을 가해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압력을 군사적으로 밑받침하기 위하여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 일본을 비롯한 반동집단은 공화국의 핵시설에 대한 국부타격 이니 뭐니 하면서 공공연히 군사적개입시도를 표출시켰으며 우리가 특별사찰 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사회에 상정시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재 를 강행한다는 계략까지 작성해 놓고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당한 압력이였다.

그런데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국제반동들의 군사적 압력소동은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 압살기도인 동시에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유발하고 우리 겨레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민족말살의 검은 구름이였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어 일련의 결실을 가져오기도 했던 북남대화가 전면동결되고 북남합의서와 비행화공동선언 리행이 차단되었으며 정세는 바야흐로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가 아니면 동족끼리 대결하여 핵참화를 당하고 대국의 희생물이 되느냐 하는데까지 치닫고 있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탁월한 전략적 구상에 따라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되고 민족이 사는가 죽는가 하는 준엄한 정세에 대처한 주동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1993년 3월 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로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치가 발표되고 련이어 1993년 3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 정부성명이 발표되었다.

미국과 남조선 그리고 국제반동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로 번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위적 조치로서 준전시상태에 들어간다는 것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이 선포된 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피로써 쟁취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침략자들에세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칠 것이라는 신념과 의지의 결단이였다.

온 세계는 이제 조선반도에서 총포성이 울리는 외 다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바야흐로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천만뜻밖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퍼졌다.

1993년 4월 7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작성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이 채택발표된 것이다.

(내일 계속)